

노동소득분배율 추계

유동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머리말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Kaldor(1957)나 Prescott(1986) 등이 주장해온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정형화된 사실 중 하나로 여겨졌던 노동소득분배율의 불변성(Constancy of labor's share)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 추계에 대한 논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





면 단순히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상의 논의가 가능해지고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 추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런 추정 결과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해석을 짚어보고자 한다.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실체와 추계상의 논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Elsby, Hobijn and Sahin, 2013).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과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는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 Koh, Santaaulalia-Llopis, Zheng(2016)이 2013년 개정된 경제분석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47년 68퍼센트에서 2013년 60퍼센트로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노동통계국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농업분야를 제외한 노동소득분배율(labor share of nonfarm business sector output)”의 경우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1947년 1분기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5.8퍼센트였으나 1999년에는 61.8퍼센트까지 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2005년에는 58.9퍼센트 그리고 2011년 4분기에는 최저점인 56.0퍼센트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약간의 반등을 거쳐 2016년 3분기에는 58.4퍼센트까지 상승했지만 그 후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즉 노동소득분배율(α)은 다음 공식을 이용 추정할 수 있다($\alpha = \frac{WL}{PY}$). 여기서 PY는 총산출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한 부가가치 혹은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며 W는 시간당 평균 임금, L은 총 근로시간을 뜻한다.

부가가치나 국내총생산 같은 국민소득의 경우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를 추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노동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뉘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임금근로자 노동소득의 경우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분기별 인구조사(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를 통해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애매하지 않은 노동소득(unambiguous labor compensation)”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임금근로자의 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의 비율(payload share)로 불리며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피용자보수의 비율(α^e)은 다음과 같이 추정이 가능하다.

$$\alpha^e = \frac{W^e L^e}{PY} \quad (\text{여기서 } W^s \text{와 } L^s \text{는 각각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과 총 근로시간을 의미})$$

문제는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로, Krueger(1999)에 따르면 이들의 소득에서 노동소득만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정방법이 적용되어 왔는데, Kravis(1959) 등이 주장한 추계방식의 경우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비율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비율과 같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자영업자의 총 노동시간은 지표상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노동시간과 급여노동자 노동시간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소득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즉, L^s 를 자영업자의 총 노동시간으로 정의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lpha = \left(1 + \frac{L^s}{L^e}\right) \alpha^e.$$

이와는 다르게 자영업자의 소득 전부를 영업잉여로 보고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만을 노동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자영업주의 소득 중 자본감모 총당금(capital consumption allowances)과 재고재평가(inventory valuation adjustment: IVA)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과대추정될 수 있다. Karabarounis and Neiman(2014)은 기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분배율을 계산하는데 기업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계산에 대한 문제를 우회할 수 있고 노동분배율 또한 쉽게 추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문



제점은 기업분야가 전체 경제주체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이질적인 면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기업분야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은 자영업주의 노동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Koh, Santeulalia-Llopis, Zheng(2016)의 경우 지표에서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 중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새롭게 주장한다. 지적재산자본(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IPP)은 연구개발, 오락·문화·예술품원본(entertainment, literary and artistic originals),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1999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친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개정을 통해 투자의 일부로 재분류됐고 이런 지적재산자본의 재분류가 지표에서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즉 지적재산자본을 국민소득과 노동소득 계산에서 모두 제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947년 이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경제가 지적재산자본집약적인(IPP-capital intensive) 경제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논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산업별 단위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으로 급여소득의 하락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별 급여소득의 변화와 산업의 구조변화를 분해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각각의 산업 내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와 산업들 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분배율의 재조정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다.

Elsby, Hobijn, Sahin(2013)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87년까지 피용자보수 비율의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경제활동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업의 급여소득 비중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급여소득분배율의 변화를 불러와야 했지만 각 산업 내에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급여소득의 비중이 높아져서 급여소득 분배율이 1947년 후 40년 동안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1987년부터 2011년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는 제조업, 운송업, 유틸리티산업 등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소득(급여소득) 분배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산업단위 혹은 기업단위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Autor et al.(2017)의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원인을 슈퍼스타기업(superstar firms)에 시장이 집중되는 것에서 찾고 있는데 기술변화와 세계화가 산업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다면 시장은 슈퍼스타기업에 편중, 이들 영향력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며 생산시장집중(product market concentration)을 불러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슈퍼스타기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부가가치와 기업의 매출에서 노동의 비중이 적다는 데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Autor et al.(2017)은 기업단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 시장의 집중도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산업 내에서의 기업분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기술변화, 기계화·자동화, 임금의 상대적 가격변화 등이 언급되는데, 이런 해석의 공통점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런 변화가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Barkai(2017)는 최근 논문에서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 자본소득과 이윤을 구분하여 분해할 경우 지표상에서 노동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본소득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윤의 비중 증가로 상쇄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경쟁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이윤폭의 증가를 들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시지표나 산업별 통계를 이용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혹은 개인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득불평등, 성장회계, 경제발전, 경기변동 분석에서 다양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소득불평등의 결과물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계하는 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전부 영업이익으로 보고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배율을 계산할 경우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 산업을 기준으로 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모든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기인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 산업구조와 시장 생태계의 변화에서 오는 효율적인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현실에 맞는 이론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KLI

 참고문헌

- Autor, David, David Dorn, Lawrence F. Katz, Christian Patterson, and John Van Reenen(2017), “The Fall of the Labor Share and the Rise of Superstar Firms”, NBER Working Papers 23396.
- Barkai, Simcha(2017), “Declining Labor and Capital Shares”, Working Paper.
- Elsby, Michael W. L., Bart Hobijn, and Aysegul Sahin(2013), “The Decline of the U.S. Labor Sha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44(2), pp.1-63.
- Kaldor, Nicholas(1957), “A Model of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Journal* 67(268), pp.591-624.
- Karabarbounis, Loukas and Brent Neiman(2014),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1), pp.61-103.
- Koh, Dongya, Raul Santaeulalia-Llopis, and Yu Zheng(2016), “Labor Share Decline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pital”, Working Paper.
- Kravis, Irving B.(1959), “Relative Income Shares in Fact and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49(5), pp.917-949.
- Krueger, Alan B.(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89(2), pp.45-51.
- Prescott, Edward C.(1986), “Theory Ahead of Business-Cycle Measurement”,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0(4), pp.9-22.